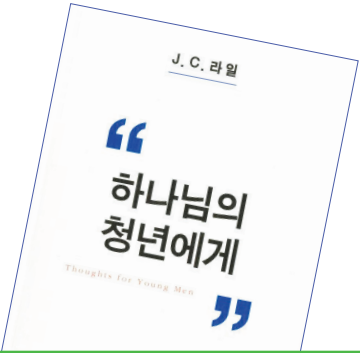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_ 시편 67:2-3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4 | 유아숲 어린이주일 연합예배 | 8 | 유아세례 | 10 | 비 / 반기독교상징들 |
| 3 |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 5 | 마더와이즈 / 아기정원 | 9 | 공동의회 항존직 피택자 | 11 | 십자말풀이 |
| 3 | 청년교사의 일기 | 6-7 | 무지개잔치 화보 | 10 | 교회사용설명서 | 12 | 설문조사 심층분석 |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애착인형, 나의 예수님

아기가 태어나면 선물하기도 하는 그것. 바로 애착인형입니다. 애착인형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물건 중 하나로, 성장하는 동안 함께 하면서 친구나 가족처럼 느끼는 인형입니다. 아이들은 이 인형에게 애정을 표시하며, 때로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유아숲 어린이주일 연합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의 품에는 예수님 인형이 안겼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고픈,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처음처럼 소중히 아끼는 나의 애착인형이 바로 이 예수님 인형이라면 어떨까요? 포근한, 따듯한,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편안한...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유아숲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⑤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

존 파이어는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상은 아직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무리 안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선교의 목표로서 예배

모든 선교의 목표는 살아 계신 한 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 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간을 이끌어오으로써 궁극적인 행복과 복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몰아가는 역동적인 신적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랑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요한계시록은 한층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본다.

선교적 찬송

찬송하도록 창조됨 사 43:7, 사 43:20b~21, 렘 13:11. 이 본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찬송하도록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단언한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세계 열방을 동일한 찬양의 오케스트라로 데려오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찬송하도록 구속받음 엡 1:3~14에서 바울은 세 번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구절을 사용한다. 이스라엘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속되었다. 하나님 백성의 예배하는 삶과 열방 가운데 그 예배를 확대하는 그들의 선교적 기능은 서로 필수적이었다. 벧전 2:9~12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드릴 수 있게 된 "신령한 제사"가 그들이 열방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의 일부로 "선포하는" 예배와 찬송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백성의 찬송은 선교적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찬양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는 공적 예배는 개인 전도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보완한다. 공적 찬송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엮는, 아직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자비와 능력을 알린다.

찬송을 통해 증거함 유럽 대륙의 회심이 두 유대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던" 감옥에서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그들의 모임에 참석했던 불신자가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확신했던 이유는 그것은 선교적 찬송이기 때문이다.

선교적 기도

열방과 구별된 표지로서의 기도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가시적 모델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의 기도 생활은 선교적으로 의도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나타내는 표지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 칭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들을 창조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증거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열방을 향한 축복으로서의 기도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는 열방을 향한 선교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열방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놀라운 기도인데, 솔로몬이 그 요청을 견고히 하기 위해 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이다.

열방의 우상숭배를 전복하는 기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우상숭배적인 자만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 계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기도는 "더 높은 보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늘과 땅, 모든 열방과 그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천명하며, 또 담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할 것을 기도한다. 이 또한 선교적 기도다.

기도와 선교사역 -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 생활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하나님 아들의 육화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없다. 예수님의 지상 선교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확인해 주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도, 잔인한 십자가 처형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

기도와 선교사역 - 사도행전 오순절이 되기 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자신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인 첫 반응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는 점점 늘어나는 신자들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였다. 기도는 유럽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도 활동이었으며, 늦은 밤 찬양과 합해졌을 때 기적을 일으킬 만큼 효과적인 행동이었다.

기도와 선교사역 - 바울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데 신비스럽게 협력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온갖 종류의 선교를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 기도는 궁극적인 승리와 그 승리로 이끄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의 세계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기도는 진리, 의, 믿음, 구원만큼이나 우리의 갑옷과 무기의 일부다. 그와 같은 기도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복음을 위한 싸움에 기도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요약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 두 가지다. 찬송은 우리가 창조되고 구속받은 목적이며, 모든 민족과 창조세계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았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 백성의 표지로 나타나면서 선교를 뒷받침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선교의 한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선교가 정말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그 안에 다시 거하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도의 목적을 표현하는 도전적인 방법이다.

‘선교적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청년

하나님의 청년에게

청년들을 권면하는 이유

청년의 때는 성년의 때를 위해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일생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이자 전체 삭고의 전환점을 맞는 때입니다. 청년 때의 성품으로 성년의 때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전반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젊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습관의 힘 때문에 영영 그분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청년인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합니다. 청년들이여, 마귀가 쳐 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는 강력하며, 실 줄 모르고, 교활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라는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젊은 날의 무수한 죄악들로 괴로워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이 얼마나 큰 위로를 누리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지십시오. 젊은 시절에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나서서 거둡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청년들이 경계해야 할 특별한 위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지식과 외모와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지와 경험 부족이 교만의 토대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을 사랑함입니다. 쾌락은 만족을 모를 뿐 아니라 공허하고 무의미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부주의함입니다. 자기 주변을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살면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한 크나큰 근심과 슬픔을 겪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경멸입니다. 거룩한 일을 업신여기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농담을 일삼지 마십시오. 다섯째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함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울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

청년들은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가까이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젊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여러분의 인도자와 조언자로 삼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벗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가까운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를 위한 지침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죄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죄로 이끌만한 모든 일을 피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디 있든지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_ 예레미야 3:4

함줄함울 / 하나님의 청년에게(J.C.라일, 복있는사람)

청년교사의 일기

배우고 나누는 소년부 공동체

처음 소년부 교사는 대학교 1학년 때 PPT를 넘겨달라는 청년부 셀장언니의 부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예배 때 어린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보니 이제 막 어른이 된 저로서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된다면 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바로 소년부 교사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마음과 달리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맡은 역할들이 꽤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제가 잘못된 성경 지식을 알려주지는 않을지, 건강하지 못한 신앙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이런 부담과 걱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는지 매주 느끼게 하였고, 소년부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순간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 누군가의 싫은 점을 보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크리스천으로서 답해야 할 때였습니다. 매주 나오는 이야기에 관하여 크리스천으로서 답을 주고 싶었는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면 기뻐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듯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였습니다. 곧바로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통해서 답을 찾았고, 함께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의 규칙에서 행동의 이유를 찾지만 크리스천은 성경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음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에 반별 공부 시간이 더욱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매주

하나님을 조금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보니, 거룩한 부담감으로 반별 공부시간을 기대하게 되었고, 어린이들과 믿음의 공동체로 묶인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소년부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소년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보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오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랜 기간 누리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시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지와 삶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조언을 해주실 때면 하나님께서 소년부 선생님들을 저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년부 공동체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배우기도,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속한 소년부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의교회 유유택청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_ 마태복음 18:3

유유택청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가득하고, 그 공동체에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김상아 교사 / 소년2부

유아숲
어린이주일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창1:27)라는 주제로 마침 어린이날 당일이자 어린이 주일인 특별한 날에 부모 참여예배로 유아숲 7개 부서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후 3개월 즈음의 아기부터 7세 어린이까지 함께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도록 잘 준비하기 위해 교역자들은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 모든 부서가 지지해 주어서 감사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연합 연극팀 선생님들과 유아

부 찬양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이 주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배부한 유아숲 제작 예수님 인형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과 지혜의 아이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 아이가 참으로 귀한 이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이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서 부모로서 교역자로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가정사역원
마더와이즈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마더와이즈 개강 한 달 전쯤 자동차 운전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다가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 아기에요!"라며 대성통곡을 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지 마더와이즈를 통해 알게 하여 주셨다. 2주차부터 참여하게 된 마더와이즈는 감사의 눈물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내가 생각보다 참 좋은 엄마, 괜찮은 엄마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 능력으로는 아이를 온전히 키워낼 수 없다는 걸 알게 해 주셨다. 교만에서 비롯된 나의 통제적인 의가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자기합리화되어 가정 안에서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 마더와이즈 과정을 통해 결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거실 창밖으로 까치 우는 소리가 유난히 소란스럽게 들려서 내다보았는데 두 쌍의 까치들이 만들어놓은 둥지를 두고 뺏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평소에 흔히 볼 수 없던 상황이라 고개를 내밀고 유심히 지켜보던 중 문득 사람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주를 놓고 본능적으로 지키며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말이다. 그렇게 본능적이고 육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을 대하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적 존재로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내 안의 허기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깨우침을 주셨다. 말씀으로 배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의 고집스러운 그 모든 신념을 무력하고 의미 없게 만든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 순복하고 싶

은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기보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속삭이고 계셨다.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를 통한 묵상은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었다. 때로는 기뻐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고, 때로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버리지 못하고 서성이면서도 치열하게 주님을 갈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중심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망설이며 버리지 못했던 책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식사 자리나 아이와 단둘이 있는 여윌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나누게 하셨다. 일요일 예배시간에만 부르던 찬양이 일상에서 절로 나오게 하셨다. 묵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았던 나 자신이 혼자 중얼거리듯 찬양하며 기뻐했고 말씀을 보며 새 힘을 얻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의 의가 올라와 후회하는 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순간의 후회를 자책하거나 죄책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켜 기도하게 하는 순간들을 허락하셨다. '자유'를 주제로 한 7기의 주제찬양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라는 찬양 가사를 모임에 오기 전에 묵상해 본 적이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숨 쉬듯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한다.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서 매 순간 내가 진정으로 숨 쉬듯 자유 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생명수가 가득 넘쳐나 가족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다.

끝으로 마더와이즈 과정을 통해 저를 은밀하고 깊게 일깨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이윤경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김현진 / 마더와이즈 7기 5조

유아숲
아기정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기정원

주님의교회 아기정원은 15~40개월의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유아숲 신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쁨 가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함으로 양육자와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자라납니다. 29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요!"라는 주제로 토요일,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목요일, 8주간 진행되었지만, 아이들의 원 입소가 빨라지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토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으로 이동 후 아기정원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육자 한 명이 아닌, 가족이 함께 참여하거나 아빠와 함께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아빠·할머니와 함께 활동하며 안정감을 경험하고 함께 웃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기정원은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투르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활동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 밖으로 더 좋은 시설과 놀이 및 교육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는 센터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자 주말 이른 아침부터 고군분투하며 아기정원으로 오시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모습은 최고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기정원은 아직 자녀가 없는 저에게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식 앨범 작업을 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 조부모님 품에 안기어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기정원의 시간들이 아기들 마음과 기억 속에 아름답게 담겨 훗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양분이 되게 하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29기 아기정원의 주제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도록 아기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 준비하여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신 엄마·아빠·할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들과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4년 하반기 30기에 만나게 될 아기정원 친구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은솔 전도사 / 유아숲



미션 메이커스

2024년 전교인 무지개잔치가 5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따라 '미션 메이커스(Mission Makers)'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섯 개 존이 운영된 이번 무지개잔치의 모습과 찬양과 친교의 시간, 이어서 세븐에듀 대표이자 다니엘기도회 강사 차길영 대표의 '수학실력과 영성을 키워주는 법'이란 주제의 특강 모습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함글함글





2024 전교인

무지개 잔치

미션 메이커스

무지개 잔치

듣고 맛보고 즐기는 사이
기쁜 소식은
어느새
우리내 마음으로 달려 갑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과 나눔은
파란 하늘에 부서지며
무지개 빛 시간 되어
퍼져 갑니다.

빨주노초파남보
형형색색으로 부서진 마음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져
사랑의 등불되어
전해 집니다.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 그 사랑의 빛을
이름도 없이 수고하며 전하는
자리에 서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일상속의 선교는 늘 그렇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우리와 한 몸이 된 소중한 아이들

세례는 주님과 연합일 뿐 아니라 교회와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모두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각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를 통해 우리와 한 몸이 된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머리되신 주님을 따르는 한 몸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소중히 여기며 함께 키워갑시다. (가나다순)

함글함글



강선아 아기

아빠 : 강상희, 엄마 : 배지현

선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며 밝고 맑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선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소희 아기

아빠 : 안규상, 엄마 : 이예주

사랑하는 주님, 소희가 기쁘고 어려운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동행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강지유 아기

아빠 : 강준규, 엄마 : 오수민

우리 지유가 밝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안예준 아기

아빠 : 안규상, 엄마 : 이예주

사랑하는 주님, 예준이가 기쁘고 어려운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동행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고우리 아기

아빠 : 고성훈, 엄마 : 신현주

항상 건강하게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르며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녀되게 하소서.



오시현 아기

아빠 : 오인목, 엄마 : 유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성장하며 예수님의 지혜와 상냥함을 닮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는 시현이 되게 해주시고 꿈을 이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김재이 아기

아빠 : 김평섭, 엄마 : 최은혜

주님, 저희 가정에 소중한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선물이 우리에게 온 순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지혜를 저희 부부에게 허락해주세요. 양육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주님의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이한울 아기

아빠 : 이효근, 엄마 : 이정희

정확무오한 성경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해나 아기

아빠 : 김형섭, 엄마 : 김혜수

우리 해나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해주세요.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임하임 아기

아빠 : 임승택, 엄마 : 송은혜

하임이의 이름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어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김희서 아기

아빠 : 김정휘, 엄마 : 김민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다른 이들과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라게 하소서.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임노아 아기

아빠 : 임승택, 엄마 : 송은혜

성경 속 노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트리며 어느 곳에 서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남기윤 아기

아빠 : 남현우, 엄마 : 임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온 맘과 정성 다해 기도하며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임아린 아기

아빠 : 임현준, 엄마 : 김수빈

아린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시고, 아린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이현 아기

아빠 : 박종우, 엄마 : 이지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장유하 아기

아빠 : 장성식, 엄마 : 유혜린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 유하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알아가며,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4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장로 2, 안수집사 12, 권사 17 피택

2024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가 지난 5월 12일과 19일에 걸쳐 전자투표방식으로 시행되어 최종 장로 2명, 안수집사 12명, 권사 17명이 피택되었습니다. 코로나시대를 벗어나 많은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피택자들이 피택자교육을 잘 마치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나다순)

함글함글

■ 장로 (2명)



최성이



최영인

■ 안수집사 (12명)



김광수



김성배



김성우



김성흠



박재원



배종수



유범석



임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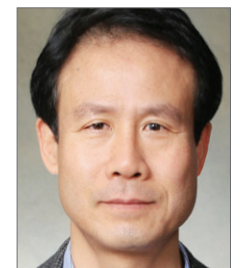
임채홍



전기옥



조민호



황광수

■ 권사 (17명)



김경주



김경혜



김미선



김성경



김학순



김현미



박성연



박은경



양윤정



유소자



유윤정



이양진



장계희



차정숙



탁윤주



홍계옥



홍정미

교회사용설명서⑨

성경 필사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필사(筆寫)는 ‘베껴 쓰다’라는 뜻으로, 보통 문헌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책을 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는 성경을 옮겨 쓰는 것으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보통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했는데, 그 일이 몹시 고되었기 때문에 수행의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1980)은 1327년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원 안에서 성경 사본을 만들던 수도사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금속활자인쇄술을 개발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를 펴낸 후 인쇄본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경 필사의 목적은 단순히 사본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신앙을 가다듬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 성경 필사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누가복음 1:2) 말씀을 주제로 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큐티 교재인 <주님과 함께>에 수록되는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추어 2021년 1월 <민수기>부터 시작했으며, 지금은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는 <예레미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경 분량에 따라 1권에 담을 수 있도록 조절하여 ‘성경 필사 노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에는 흐린 글씨로 성경 구절을 넣어, 필사할 때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성경 필사 일정은 1년에 필사 노트 3권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실행하고 있으며, 한 권을 쓴 후에는 약간의 휴식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년마다 완성되는 3권의 노트는 연말에 합본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성경 필사 노트는 모두 3,100권(성인용 2,600권, 어린이용 500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전량 소진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학생들에게 권장하기 위한 정신학원 요청에 따라, 2024년 상반기에 <잠언> 편 성경 필사 노트 500권을 제작해서 기증했으며, 하반기에도 같은 수량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주님의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교회에서 배포하는 성경 필사 노트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성경 필사는 언제나, 아무 때나, 어떤 노트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한 번, 일정한 시간을 내는 것과 같이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함글함글

성경 필사 일정		필사 노트 1권에 쓰는 성경
2021년	1~3월	민수기
	7~9월	잠언, 전도서, 아가
	10~11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2022년	1~3월	사도행전
	5~8월	창세기
	10~12월	역대상, 역대하
2023년	2~3월	여호수아
	4~6월	마태복음
	8~9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024년	1~3월	사무엘상, 사무엘하
	5~6월	마가복음
	10~12월	예레미야

비기독교

반기독교 상징들 ②

앙크(앵크) 십자가

전형적인 십자가의 상단에 원이 더해진 형태의 십자가 모양인 앙크(앵크) 십자가는 ‘손잡이 달린 십자가’라는 뜻의 ‘크룩스 안사타’라고도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해석되는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이다. 이집트의 고분벽화나 다른 미술작품에서 종종 신들이 손에 쥐여진 모습이나 파라오가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영혼을 되살리는 힘을 나타낸다. 주후 4~5세기 이집트의 그리스도교화 이후에 콥트 기독교 문화권(이집트에 토착된 기독교로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단성론을 주장하여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판정)에서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반지, 목걸이 팬던트와 장식품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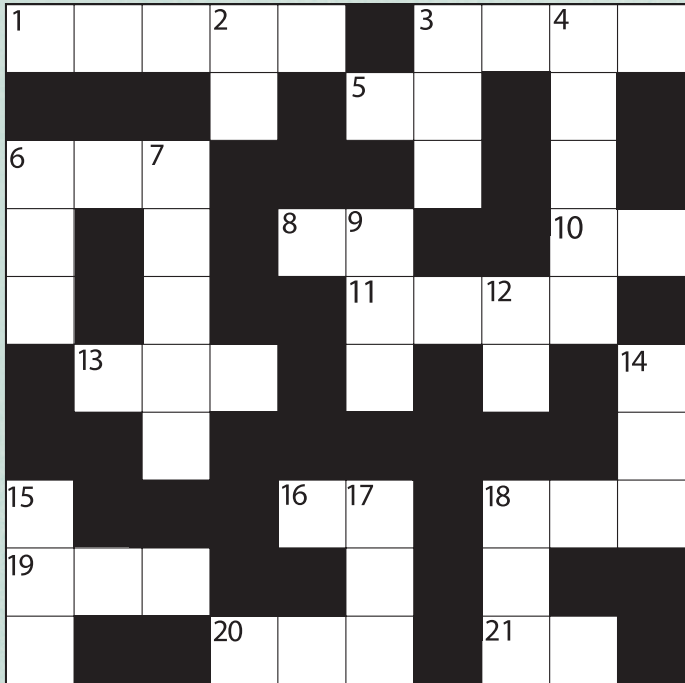
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십자가 모양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의 신과 파라오의 상징이다. 그저 십자가와 비슷한 모양의 악세사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다니엘 편

이번 호는 <다니엘> 편입니다. <다니엘>의 저자는 기원전 6세기 무렵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선지자 다니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된 전말과 함께,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3호 에스겔 편 정답



가로 힌트

- 1. 바사 제국의 황제.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 라고 부른다. 갈대아 왕이 된 다리오의 아버지이다. (단 9:1)
- 3. 아사랴의 바벨론식 이름. 아사랴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이다. (단 1:7)
- 5. 성경에서 페르시아를 부르는 표기. 페르시아는 구약 시대에 바벨론과 유다를 점령했다. (단 5:28)
- 6.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지방. 바벨론의 남부에 살던 주민들, 또는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을 이 곳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단 3:8)
- 8. 본 것과 같이.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단 8:6)
- 10. 너의 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단 8:22)
- 11. 다니엘의 다른 이름. 바벨론의 환관장이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단 4:8)
- 13.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 잡혀 왔다. (단 2:17)
- 16.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이나 전말을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 주로 공적 관계에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한다. (단 6:2)
- 18. 유다 왕 여호아김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 대를 이은 바벨론 왕들의 꿈을 해석하여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단 1:6)
- 19.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 원래 이름은 하나나로, 바벨론의 환관장이 바벨론식으로 고쳐 부른 이름이다. (단 3:13)
- 20. 구약 시대 금의 생산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 10:5)
- 21.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날. 현재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단 9:7)

세로 힌트

- 2. 에서의 별명이자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 에돔은 ‘붉다’ 라는 뜻이다. (단 11:41)
- 3.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 잡혀 왔으며,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아벳느고이다. (단 2:17)
- 4. 신바벨론의 2대 왕. 유다 민족 가운데 다니엘 등 젊은이를 포로로 잡아간 후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 왕을 위해 일하도록 했다. (단 1:1)
- 6. 갈비뼈의 하나 하나를 부르는 말. (단 7:5)
- 7.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 다니엘 등 포로로 잡온 유다 젊은이들의 바벨론식 교육을 담당했다. (단 1:3)
- 9. 중동 지역에 있던 고대 왕국. 유다 지역을 정복한 후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단 3:30)
- 12. 고양이과에 속하며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하는 최상위 포식동물. 수컷은 목덜미에 긴 갈기가 있어 암컷과 구분된다. (단 6:7)
- 14.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메식’ 이다. (단 1:7)
- 15.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살해되었다. (단 7:1)
- 17. 바사 제국의 첫 왕. 바사 지역을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재건축을 도왔다. (단 10:1)
- 18. 아하수에로의 아들, 바사의 왕. 다니엘이 이 왕 아래에서 총리를 지냈다. (단 5:31)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심층분석 시리즈 4

사역에 참여하는 교인에 대하여

지난해 실시한 창립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는 2018년 설문조사 이후, 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뜻깊었습니다. <함글함글> 477호(2023. 12. 31)에 포괄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했지만, 교회의 현황과 미래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팀의 주제별 심층분석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네 번째 심층분석의 주제는 ‘사역에 참여하는 교인’입니다. 사역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2023년 전교인 설문조사에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39%였는데, 2018년 설문에도 응답했던 분들의 경우 48%여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의 사역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23년 설문에서 처음 응답하신 분들의 참여율은 26%로, 교회 생활이 오래지 않은 분들이 사역 참여할 기회가 적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역 참여자를 100%로 놓고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50~60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27%)을 보이고, 66~75세(25%), 61~65세(24%), 40~49세(14%) 순으로 나타납니다. 61~65세(여 25%, 남 21%)를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겨자씨모임 분석과 비교할 때 연령대와 남녀에 있어서 더 넓은 분포를 보이는 점을 해석하자면, 사역부서에서의 사역과 봉사는 주로 주일에 이루어지고, 사역부서마다 제각기 가능한 요일과 시기를 정하므로 직장, 학교, 육아 등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76세 이상 연령대에서 남녀 공히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고령에 따른 신체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부서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거주지역별 응답자 비율을 보면 주님의교회와 멀고 가까운 지역 관계없이 대개 평균비율(39%)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역부서 참여율과 거주지역 간의 상관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를 직업으로 구분하였을 때 대학생(58%) > 가사전담(44%) > 교육자와 전문직 종사자(40%) > 공무원(33%) > 일반 기업(30%) 등의 순서로 사역부서 참여율을 보입니다. 교회 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교인과 전문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교인의 참여 비율이 다른 직업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존직(60%)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역 참여율이 크게 높으며, 그중 91%가 1~3개 사

역부서에서, 9%는 4개 이상의 사역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신앙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 응답자(48%), ‘하나님의 선교’의 장소를 사역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59%), 교회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2%)의 비율이 평균(39%)보다 높고, 가정(35%), 일터(36%), 국내외 선교지(37%) 등으로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또는 봉사의 의미를 은사 개발(47%)과 교인의 의무(44%) 및 믿음의 훈련(42%)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참여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주님의교회가 교인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45%)의 참석률도 전체 응답자(39%)보다 높습니다. 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응답자(41%), 모태 신앙 응답자 중 사역부서에 참여하는 비율은 39%로 비항존직 참여율(31%)보다는 높지만, 전 교인 참여율(39%)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역과 봉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제외한 다른 어떤 신앙활동보다도 전 연령대에 걸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주일이나 부서별로 정한 시간에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회생활과 가사 등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역 참여에 있어서는 교회와 거주지역의 거리도 큰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큰 직업을 가진 교인의 사역부서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일정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존직의 사역부서 참여율과 열심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신앙의 밀도와 책임감이 사역 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과 봉사에 열심인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교 장소를 사역 현장과 교회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신앙 리더의 역할에 따라 참여율이 높아지며, 교회가 어려움을 잘 알아주면 또한 사역 참여율이 높아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의 사역부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앙훈련과 더불어 친교의 기회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설문조사팀

교회일정

5/26 (주일)	삼위일체주일
6/5 (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2교구)
6/8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6/9 (주일)	정기당회

알립니다

1. 해외비전트립 물품 후원

기간 : 5/19 ~ 6/2(주일)
시간 : 1부 예배 후 ~ 오후 1:00
물품 : 선교지 요청물품 후원
문의 :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
▶ 후원 : SC제일은행 204-20-112255 주님의교회
※ 제품 일괄 구매 및 세관 통관상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교육비 신청

대상 : 저소득층 학생(초·중·고·대학(원)생)
기간 : 5/21(화) ~ 5/30(목)
서류접수처 : (사)섬김과 나눔 사무실(5층)
문의 : 이정은 집사(010.2882.5113)
* 자세한 사항은 교회 내 광고 포스터 및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홈페이지 참조

3.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순회연주

일시 : 5/26(주일) 오전 9:00
장소 : 중예배실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